

디지털TV시대 개막, 불교계 과제는?

12월 31일 디지털 방송시대, 불교문화 콘텐츠 디지털화 시급

2012년 12월 31일 새벽 4시를 기해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와 함께 기존 방식보다 6배 이상 선명한 디지털 방송시대가 개막된다.

1956년 선보인 한국 최초의 텔레비전 방송인 대한방송(HLKZ-TV)이 56년 만에 종료되면서 한국사회 뿐 아니라 한국 불교계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가장 먼저 TV 시청의 문제가 대두된다. 기존 유료방송(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라면 계속해서 기존 방식을 시청할 수 있지만, 시골에 위치한 사찰과 난시청지역의 불자들 중 기존 아날로그 TV와 안테나를 통해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라면 디지털 지상파 방송 전환을 해야 한다. 확인 방법은 간단하다. TV를 시청하는 중 화면 하단에 '보고 계신 아날로그 TV는 정상적인 시청이 어렵습니다'라는 자막이 나온다면 지상파 디지털 전환을 해야 한다.

시청에 따른 문제는 정부와 기존 방송사에서 오래전부터 준비해 와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보관해야 하는 불교계와 사찰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대두된다.

한국 문화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교문화재는 제대로 된 디지털 영상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현실에 불교문화재를 알리는 여러 방송에서 소외될 소지가 높다.

문화계 디지털 영상 확보 시급

아날로그 영상물 무용지물

TV방송서 소외될 소지 높아

HD급 영상장비로 교환해야

불교문화재는 제대로 된 디지털 영상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현실에 불교문화재를 알리는 여러 방송에서 소외될 소지가 높다.

또한 큰 사찰별로 큰 스님의 범문과 행사 영상을 담아 보관하고 있는 사찰에서는 더 이상 아날로그 방송에 맞는 영상물이 무용지물이 될 소

지가 다분하다.

전남지역 교구본사 관계자는 "현재 본사 뿐 아니라 말사에서 디지털 방송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적이 없으며, 사찰에서 보관중인 영상테이프가 대부분 아날로그 방송에 맞지 않아 제작된 것이어서 향후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불교용품을 판매하는 전통 사찰의 경우 사찰의 사계절 영상과 생활상을 담은 비디오와 사진 등을 제작해 방문객에게 판매하고 있다. 그중 불교 입문자에게 불교의 예절과 기초과정을 담은 비디오 등을 판매했으나, 디지털TV 시대에는 소비자의 고해상도 화질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본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금 영상물들의 4개월 모음을 다시 촬영해 보관하는데 최소 1년 이상의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각 종단의 총무원은 아직까지 디지털 방송에 대한 불교계의 대비책을 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불교관련 영상물은 방송뿐 아니라 사찰순례나 신도교육에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사찰 순례의 경우 순례하는 해당 사찰의 영상물을 구입하여 버스로 이동하는 도중 방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큰 스님의 경우 기존 영상물을 촬영하여 사후 일대기로 방송에서 방영하는 경우가 많다.

디지털 방송은 단순한 고해상도의 화면의 변화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있는 불교계에서는 포교·신행·역사·문화재 보존·인물영상 등 다방면에 걸쳐 변화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기본 해결책도 있다. 광주시 방송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문화재 보전과 홍보를 위한 영상이라면 먼저 전문업체와 상의하여 연간계약을 통해 사찰이미지를 촬영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한 사찰에서 사용하는 일반 영상물인 경우 장비의 대부분을 HD급 영상장비로 교환하기를 주문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원사, 섬마을 주민들에 짜장면 보시

위도 주민에게 300그릇

'사랑 실은 스님 짜장'으로 유명한 남원 선원사 운천 스님이 서해 도서지역인 위도를 방문해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짜장면을 무료 제공했다.

운천 스님과 선원사 신도, 지구촌공생회 전북지부(지부장 원광) 회원들은 12월 20일 위도를 방문해 위도중·고등학교 강당에서 주민, 경로당회원, 학생 등 300여명에게 정성을 가득 담은 짜장면을 대접했다. 본섬인 위도를 비롯해 5개 섬 11개마을 주민 13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위도에는 중학교가 없어 짜장면은 별미로 통한다.

김재일 위도 면장은 "겨울철이면 섬 주민들은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선원사 운천 스님은 선원사 신도들과 위도를 방문해 짜장면을 300그릇을 보시했다.

유지위래도 쉽지 않다"며 "주민들을 위해 짜장면 봉사를 해준 운천 스님과 불자들이 너무 반갑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위도면 한 주민은 "중화요리점이 없는 위도에 짜장면만큼 맛있는 음식은 없다"며 "특히 운천 주지스님의 짜장면은 담백하다. 종종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매월 5-6회 정도 전국의 복지관이나 시설에 짜장면 봉사를 하는 운천 스님은 지난 12일에도 불산가스 누출사고로 인해 집을 떠나 경북 구미 해평 청소년수련원에 머물고 있는 주민들에게 짜장면을 대접한바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동지팔죽 나눔행사 곳곳에서 열려

동지를 맞아 세시풍속 전승을 위한 '동지 팔죽 나눔 행사'가 열렸다. 완주 송광사(회주 도영)는 12월 21일 전주 모래내 시장 점단연합회 원 주자장에서 1천명분의 동지 팔죽을 준비해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며 이웃과 함께 하는 지혜로운 세시 풍속을 이어갔다.

전북불교회관 보현사(원감 보연)

도 동지법회를 봉행한 후 경로식당과 서원노인복지관 어르신들과 함께 동지 팔죽을 함께 나누었다. 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일일이 집집마다 동지팔죽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동지죽을 함께 나누면서 이웃들과 정담을 나누는 골목잔치가 열렸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광주도량 선덕사(주지 원복)는 12월 21일 동지날을 맞아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동지죽 나눔 골목잔치'를 열었다. 행사는 선덕사 주변에 있는 두암타운 사거리 주변상가, 두암타운 노인당, 두암그린파크 노인당 등에서 총 500그릇의 동지죽을 나눠줬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청소년생명평화실천단 1기 회향

생명평화 정신으로 제반 청소년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보고, 청소년 스스로 삶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바르게 서기 위한 '청소년 생명평화 실천단'이 8개월 동안의 1기 활동을 마무리했다.

'청소년 생명평화 실천단' 졸업식은 12월 16일 전주교대 마음연구실에서 열렸으며 송광사 도영스님,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 전북불교시

민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도영 스님은 "천천히 함께, 생명평화 정신의 실천행에 동참한 청소년 생명평화 실천단의 활동이 학생들의 제반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생명평화 실천단'은 지난 4월 7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8개월간 각종 봉사활동과 연등축제참가, 평화통일마라톤대회, 생명평화



청소년 생명평화 실천단 졸업식

모심기, 성폭력예방교육, 중독예방교육, 진로탐색 등을 진행했고 지난 활동을 정리한 수기집 '생명수'를 받았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소년원생 위한 자비멘토 뜨다

청암사, 소년원생에 장학금 전달

한때 문제아로 낙인돼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없었던 아이들을 위한 '자비의 멘토'가 됐다.

고흥정보산업학교(교장 박재봉, 광주소년원)는 12월 20일 교내 대강당에서 지암 스님(여수 청암사 주지), 법천 스님, 보원 스님을 비롯해 소년보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도 30여 명과 박재봉 교장, 민형배 광산구청장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감사패 및 장학금 전달과 학예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청암사 신도 김도연 불자가 법무부 장관 표창장을, 강지원, 주해군, 김예자, 박미영, 신명구 불자와 광주전남지역 포교사가 활동중인 안수길 포교사가 감사장을 수상했다.

청암사 신도들은 이날 소년원생 12명에게 장학금과 햄버거 300개를 지원했다.

한때 '광주소년원'이라 불렸던 고흥정보산업학교는 전국 10개 청소년 교화시설 중 직업교육 특화학교로, 현재 17세이상 19세 미만의



청암사 주지 지암 스님이 고흥정보산업학교 소년원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200여명의 학생들에게 자동차 정비와 자동화용접, 건축환경설비, 중장비운전 등 4개 부문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청암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소년원생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소년보호위원으로써 멘토 역할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원생들에게 장학금과 간식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여수 엑스포 기간에는 원생 20명과 직원, 자원봉사자 등 45명이 참가한 가운데 점심공양, 여수엑스포 아쿠아리움 관람, 철도레일바이크 탑승하는 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산사, 동안거 포살법회 및 교구종회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은 12월 14일 대적광전에서 포살법회를 열고 100여 대중스님에 <범망경보살 계포살본> 등을 설했다.

조계종 17교구 금산사(주지 원행)가 임진년 동안거 포살법회 및 교구종회를 봉행했다.

원행 스님은 12월 14일 금산사 대적광전에서 포살법사로 나서 100여 대중스님들에게 <범망경보살 계포살본>을 바탕으로 <불설범망경> 보살심지품, 십중대계, 사십 팔경구계를 설했다.

원행 스님은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고 열심히 정진해 사회로부터 신뢰받고 지혜와 자비로 뭇 중생을 이끌어가는 참된 수행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포살법회에 동참한 대중스님들은 계율을 받들어 지니고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을 교화하겠다는 원력을 다짐했다.

이어 설법전에서 열린 17교구 3차회의에서는 불기 2557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의 심의 의결과 중무지도 감사 보고, 전북포교 전진대회 개최의 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새해 주요사업계획은 주파수 할당문제로 개국에 난항을 겪고 있는 불교방송의 개국준비와 뇌물 처벌을 잃지 않고 열심히 정진해 사회로부터 신뢰받고 지혜와 자비로 뭇 중생을 이끌어가는 참된 수행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전남 포교사 전진대회

조계종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정영근)은 12월 15일 광주 수자타 연회장에서 100여 명의 포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불기 2556년 포교사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진대회에는 지난 한 해 동안 포교현장 곳곳에서 활동해온 포

교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한 해의 성과를 마무리하는 행사로 식전공연에 이어 법요식과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이날 법요식에는 지난 1년간의 활동에 우수 포교사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총재상에는 김경성 포교사, 중앙단장상에는 주미애, 서승례 포교사가 수상했으며, 지역단



장상에는 이진섭, 주금성, 민경성, 안수길, 지근명, 문용주, 김점심 포교사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수정기공 특강안내

신지식인 대한민국 정부인정 660
2012년 신지식인 최우수상 수상

*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 정기강의시작 : 매월 첫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 6시
* 장 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 모집인원 : 매회 8명 이내
* 연 락 처 : 010-3463-7806
*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히 불 전 합

원목 법탁

움직이거나
털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정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원목 법상

NAVER 무인경보불전합

서원불교 ☎ 043-647-2378, 011-467-1472

제2회 한국불교 흥익범패단 학 인 모 집

소승은 한국불교 범음범패 및 불교무용(승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10여년을 연구하고 공부해 온 범불승으로서 한국불교 전통범패단을 "한국불교 흥익범패단"으로 이름 짓고 창단하였습니다.

뜻 있는 분들에게는 직접 오셔서 먼저 청강해 보시고 접수는 뒤에 하셔도 됩니다. 성적이 우수한 분은 한국불교 흥익범패단에 단원으로 인정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립니다.

강의 내용

1. 기초 : 삼귀의, 사후서원, 거불, 향수해례, 사성례, 도량서, 종승, 조석예법, 사시불공, 사물.
2. 중급 : 주 들째시간 ~ 셋째시간 : 천도재의식, 시련, 대령, 관육, 신중경, 상유영반, 관음시식, 고훈소, 봉청(짚소리), 39위, 복청계, 고훈청, 현좌계, 진령계, 연사구성, 가령, 향화청, 고아일심 칠 귀명정례진소리, (짧은소리) 화청
3. 상급 : 매주 넷째시간 : 법패의식-요점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도량계, 다계, 범고춤, 호적
4. 고급 : 2년이상 된 자로서 시다림, 다비, 점안식, 방생, 생전제수제, 종사이운, 불상이운

■ 접수기간 : 수시모집
■ 회 비 : 월 10만원 (1년 선불 100만원)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본원에 비치)
■ 장 소 : 김해시삼연연합회 불교문화원 3층 법당
■ 주 소 : 김해시 흥동 7-5번지
■ 전 화 : 051)322-0088, 051)332-1675
■ 강 주 : 민지호 010-4466-3575